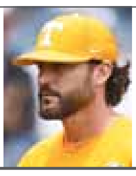

샌프란시스코, MLB 사상 최초 빅 리그 경험 없는 바이텔로 감독 선임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MLB)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가 MLB 사상 최초로 빅 리그 경험이 없는 미국 테네시대 사령탑인 토니 바이텔로(47)를 새 감독에 선임했다.

바이에른 뮌헨의 레나르트 카를이 23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클뤼프 브뤼허와 2025-2026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리그 페이즈 3차전에서 전반 5분 선제골을 넣은 후 환호하고 있다. AP·연합뉴스

17세 카를, 뮌헨 대승 선봉장 되다

선제골로 UCL 팀 역대 최연소 득점
브뤼허에 4-0…김민재 교체 투입
리버풀, 프랑크푸르트에 5-1 대승
레알 마드리드, 유벤투스 1-0 격파

김민재가 막판 교체 투입된 독일 프로축구 바이에른 뮌헨이 클뤼프 브뤼허(벨기에)를 완파하고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개막 3연승을 달렸다.

뮌헨은 23일(한국시간) 독일 뮌헨의 알리안츠 아레나에서 열린 2025-2026시즌 UCL 리그 페이즈 3차전에서 4-0으로 크게 이겼다.

김민재는 뮌헨이 4번째 골을 넣은 뒤인 후반 36분 다요 우파메카노 대신 교체 투입돼 종료 휘슬이 불릴 때까지 10분 정도를 뛰었다.

김민재는 올 시즌 뮌헨의 공식전 12경기 중 8경기에 출전했다. 그중 3경기에만 선발로 나섰고 5경기는 교체로 뛰었다.

김민재는 후반 추가시간 브뤼허 마마두 디아콘을 잡아채 옐로카드를 받았다.

앞서 리그 페이즈 1차전에서 첼시(잉글랜드)를 3-1, 2차전에서 파포스(키프로스)를 5-1로 격파한 뮌헨은 이로써 3연승을 기록하며 파리 생제르맹(PSG·프랑스)에 이어 2위(승점 9)를 달렸다.

1승 2패의 브뤼허는 20위(승점 3)에 자리했다.

뮌헨은 전반 5분 레나르트 카를이 페널티아크에서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골문을 열어 여유롭게 경기를 풀어갔다.

전반 14분에는 짱볼 크로스를 해리 케인이 문전 슈팅으로 마무리해 2-0을 만들었고 전반 34분에는 루이스 디아스가 골 지역 왼쪽에서 오른발 강슛으로 한 점을 더 뽑아냈다. 이 두 골 모두 뮌헨 주축 미드필더 콘라트 라이머가 어시스트했다.

니콜라 잭슨은 후반 34분 뮌헨의 4점 차 승리에 쐐기를 박는 골을 터뜨렸다.

만 17세 242일의 카를은 이날 선제 결승골로 뮌헨 역대 최연소 UCL 득점 기록을 새로 썼다.

저말 무시알라가 2020-2021시즌 대회 라치오와 16강 1차전에서 작성한 최연소 UCL 득점 기록을 121일 앞당겼다.

뱅상 콩파니 뮌헨 감독은 "난 팬들이 띄워주는 걸 좋아하지 않는데, 이제 카를이 그런 관심을 받게 될 것 같다. 난 훈련과 침착함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면서 팀 막내가 그라운드에서 변치 않는 모습을 보이기를 바랐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에서 충격의 3연패를 당한 리버풀은 4점 차 대승을 거두고 반등의 발판을 마련했다.

리버풀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도이치방크 파크에서 프랑크푸르트에 5-1로 크게 이겼다.

EPL '디펜딩 챔피언'이며 올 시즌 우승 후보 1순위로 꼽히던 리버풀은 최근 리그 3연패를 당해 우려를 키웠다.

갈라타사라이(터키)에 0-1로 패한 UCL 리그 페이즈 원정 2차전 전적을 더하면 공식전 4연패 중이었다. 리버풀은 이날 승리로 10위(승점 6), 프랑크푸르트는 22위(승점 3)에 자리했다.

'스페인 거함' 레알 마드리드는 유벤투스(이탈리아)를 홈인 산티아고 베르나베우로 불러들여 1-0으로 이겼다. 주드 벨링엄이 후반 12분 올 시즌 UCL 첫 득점을 신고하며 팀을 승리로 이끌었다. 개막 3연승의 레알 마드리드는 5위(승점 9), 2무 1패에 그친 유벤투스는 25위(승점 2)에 자리했다.

토트넘 홋스퍼(잉글랜드)는 모나코 원정에서 0-0 무승부에 그쳤다. 연합뉴스

웸반야마, 더 강해졌네

부상 털고 복귀전서 40점 15리바운드
'슈퍼 루키' 플래그 앞 한 수 위 실력
샌안토니오, 댈러스 125-92 대파

더 강해져서 돌아온 '신인류' 빅토르 웸반야마(샌안토니오 스퍼스)가 미국프로농구(NBA) 데뷔전을 치른 '슈퍼 루키' 쿠퍼 플래그(댈러스 매버릭스) 앞에서 40점을 폭발하며 한 수 위 실력을 뽐냈다.

샌안토니오는 23일(한국시간) 미국 텍사스주 댈러스의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센터에서 열린 2025-2026 NBA 정규리그 원정 경기에서 댈러스를 125-92로 대파했다.

돌아온 샌안토니오의 에이스 웸반야마가 무려 40점 15리바운드 3블록슛을 폭발하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웸반야마는 지난 2월 오른쪽 어깨 심부정맥 혈전증 진단을 받아 남은 경기를 결장하고 회복에 집중해왔다.

2023-2024 데뷔 시즌에 평균 24.3점 11.0리바운드 3.8블록슛으로 신인왕을 차지했던 웸반야마는 지난 시즌 더 좋아진 공격과 수비 실력을 바탕으로 올해의 수비수상도 노렸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이상 증세로 팀에서 이탈했고 샌안토니오도 서부 콘퍼런스 플레이오프(PO)에 오르지 못했다.

부상을 털고 복귀한 웸반야마는 첫 쿼터부터 11점을 몰아치며 공격을 이끌었고, 샌안토니오는 60-51로 전반을 주도했다.

웸반야마는 3쿼터 중반 원맨쇼를 펼쳤다. 플로터로 득점한 직후 이어진 상대 공격을 블록으로 차단하더니 3점포와 추가 자유투로 점수를 쌓는 등 내리 10득점 해 댈러스와의 격차를 15점 차로 벌렸다.

웸반야마는 마지막 쿼터에서는 덩크쇼를 펼쳤고, 샌안토니오는 종료 5분 26초 전 웸반야마의 페이드 어웨이 슛으로 30점 차를 만들어 일찌감치 승부를 결정지었다.

미국 출신 백인으로는 1977년 마이클 켄트 벤슨 이후 48년 만에 신인 드래프트 1순위로 댈러스 유니폼을 입은 플래그는 데뷔전에서 10점 9리바운드로 나쁘지 않은 성적을 냈으나 웸반야마 앞에서 고개를 숙였다.

샌안토니오에서는 웸반야마 외에도 지난 시즌 신인왕 스테폰 캐슬이 22점 7리바운드 6어시스트로 활약했다.

댈러스의 앤서니 데이비스는 22점 13리바운드, P.J.워싱턴은 17점으로 분투했다.

동부 콘퍼런스에서는 필라델피아 세븐티식서스가 보스턴 셀틱스에 117-116 역전승을 거뒀다.

타이리스 맥시가 3점포 7개를 포함한 40점으로 승리의 선봉에 섰다. 연합뉴스